

‘길림의 자존심’ 장춘팀과 연변팀 ‘동북리그’ 출격

- 장춘대표팀 감독 “우리가 최고” 자신감 뽐냄
- 연변대표팀, 연변팀 예비팀 주축으로 팀 구성



▲ 사진은 2025년 10월 25일,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열린 길림성 사회축구리그 결승전의 한 장면이다. 이날 연변주 현(시) 축구리그 우승팀인 연길팀은 ‘춘성’컵 2025년 장춘시 슈퍼리그 우승팀인 장춘시 조양구대표팀을 3대0으로 완파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 박경남특약기자

5월에 열리는 ‘동북리그’에 길림성에서는 장춘대표팀과 연변대표팀 두 팀이 출전한다. 두 팀 모두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목표이다. 최근, 장춘대표팀을 이끄는 가문봉 감독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팀은 2007년 생 장춘아태 선수들을 중심으로, 사회에서 열린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을 공개 모집해 구성했

다.”고 밝혔다. 가감독은 “이번 리그의 기본은 체력”이라며 “합숙 훈련을 통해 체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개인적인 목표로 적어도 3위 안에는 들겠다. 주변에서는 대련대표팀이 강하다고 하지만 자신 있게 말하건대 우리가 최고이다.”라고 신심을 내비쳤다.

한편, ‘축구의 고향’으로 알려진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이번 대회를 위해 연변룡정축구구락부 예비팀의 장봉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선수단은 연변룡정축구구락부 예비팀 선수들을 중심으로 연변주체육운동학교와 지난해 ‘연변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을 더해 팀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팀이 ‘동북리그’에서 연변축구 특유의 투지와 끝

까지 물고 늘어지는 정신,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이기려는 간절함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지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동북리그를 계기로 길림성을 찾는 팬들은 경기장에서의 뜨거운 응원은 물론 경기장 밖에서도 장춘의 도시 활력과 연변의 깊은 문화 등 길림성이 지닌 특별한 매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오건기자

갑급리그 제 3라운드 예고
4월 4일 16:00
심수청년인 VS 연변룡정

1승 1무의 무패행진으로 ‘개막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연변룡정팀이 2주간의 휴식기 끝에 원정길을 이어 심수청년인팀과 맞붙는 가운데 많은 화제를 모았던 조반니가 복귀할 수 있을지, 누네스의 부상 회복 상황은 어떤지, 팀이 호조 속에서 승점 사냥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팬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김가혜기자

중국팀, 국제축구연맹 시리즈 경기서 ‘월드컵 신참’ 쿠라소에 2대0 승리

중국남자축구대표팀이 지난 27일 오스트랄리아 시드니에서 열린 2026년 국제축구연맹 시리즈 경기에서 쿠라소를 2대0으로 꺾고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경기는 지난해 7월 동아시아컵 이후 중국남자축구대표팀의 첫 공식 경기이자 소가일 감독이 중국남자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취임한 후 치르는 첫 공식전이기도 하다. 소가일 감독은 경기전 “국가대표팀간 진정한 친선경기는 없다. 경기 결과에 큰 무게를 둔다.”며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을 강조했다. 팀은 약체 평가를 뒤집고 값진 승리를 거뒀다.

장욱녕 또한 “월드컵 본선 팀을 상대로 팀의 결속력을 보여줬다. 이번 경기는 향후 대륙간 대회를 앞둔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경기는 중국대표팀과 쿠라소대표팀의 첫 맞대결이다. 쿠라소대표팀은 작년에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작년 11월, 북중미월드컵 예선 최종 라운드에서 저메이커를 상대로 비긴 후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티켓을 거머쥔 쿠라소는 월드컵 역사상 면적이 가장 작고 인구(약 15만명)가 가장 적은 참가국이 되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으로 보면 93위인 중국팀은 81위의 쿠라소보다 순위가 낮다. 하지만 두 경을 열어보니 중국팀은 경기 내용에서 밀리지 않았다.



▲ 3월 27일, 중국팀 선수 위세호(오른쪽)가 경기중 공 쟁탈을 벌이고 있다. / 신화사

전반전 내내 중국팀은 수비 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동시에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였고 드디어 추가 시간 47분에 결과를 냈다. 장욱녕의 헤더 패스를 받은 위세호가 논스톱 발리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중국팀은 1대0으로 앞서갔다.

국제축구연맹 시리즈는 2024년부터 시작된 A매치 초청 대회로 각 대륙간 경기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회 결과는 국제축구연맹 랭킹 포인트에도 반영된다.

이번 시리즈에는 총 48개 참가 팀이 12개 조로 나뉘어 있으며 9개 남자부 조와 3개 여자부 조로 구성되어 있다. 6개 대륙축구연맹 소속의 모든 팀이 참가했다. 참가한 남자부 팀중 오스트랄리아, 베르데갑 공화국, 쿠라소,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2026 북중미월드컵 본선 진출 자격을 확보했다.

후반 들어 쿠라소는 4명을 동시에 교체하며 반전을 노렸으나 오히려 59분에 되려 수비 실책을 범하며 장욱녕이 추가골을 성공시켰다. 이후 점수는 더 이상 바뀌지 않았고 중국팀은 2대0 완승을 거뒀다. 소가일 감독은 경기후 “승리는 ‘팀의 힘 덕분’이라며 “한 경기 결과가 현재 중국 축구의 실력을 규정할 수 없지만 선수들은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 아직 길길이 멀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김가혜기자

‘동북리그’ 조 추첨 완료, 장춘·연변 개막전 상대 확정

제 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이하 ‘동북리그’)의 조 추첨식이 3월 30일 오후 2시 료닝라지호텔레비존 방송국에서 진행되었다.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추첨 결과 8개 참가 팀의 조 편성이 확정되었으며 5월 23일 제 1라운드 대진표도 공식 발표되었다. 길림성을 대표해 참가하는 장춘팀은 홈에서 통료팀과, 연변팀은 원정에서 흑호트팀과 개막전을 펼치게 된다.

- ◎ 5월 23일 심양, 장춘, 할빈, 흑호트서 동시 개막
- ◎ 제 1라운드 대진: 장춘 VS 통료, 흑호트 VS 연변, 심양 VS 계서, 할빈 VS 대련

이날 행사에는 심양, 대련, 장춘, 연변, 할빈, 계서, 흑호트, 통료 등 4개 성(구)의 8개 도시 대표팀 관계자와 조직위원회 대표, 후원사 대표, 문체 분야 유명 인사, 축구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동북리그’ 공

인수도 정식으로 공개되었다. 추첨 결과 장춘팀과 연변팀은 A1, A2에, 심양팀과 대련팀은 B1, B2에, 할빈팀과 계서팀은 C1, C2에, 흑호트팀과 통료팀은 D1, D2에 각각 배정되었다. 규정에 따라 제 1라운드 대진은 장

춘 VS 통료, 심양 VS 계서, 할빈 VS 대련, 흑호트 VS 연변이다. ‘동북리그’는 동북지역 최고 수준의 도시축구리그로 단순한 승부를 넘어 4개 성(구) 간 축구 교류와 문화 융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유구한 축구 문화를 자랑하는 장춘과 연변의 이번 대회에서의 활약에 많은 이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회는 오는 5월 23일, 심양, 장춘, 할빈, 흑호트 4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막된다. / 오건기자